

## 제10강 도시론 (1)

### (1-2교시)

#### ※ 핵심개념 : 국가장치와 전쟁기계

⇒ 국가장치의 지배와 전쟁기계의 저항 사이에서 욕망과 탈주가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다.

#### ▷ 도시와 국가 (근대 이후 도시의 역할)

##### \* 미개 사회에 대한 관점

###### - 레비-스트로스

: 쌍방향 교환(exchange)관계로 안정된 평형을 이루는 사회 (차가운 사회)

: 마르셀 모스의 『증여론』 “모든 인간관계는 Give and Take로 이루어진다.”

: 전쟁은 ‘실패한 교환’이다.

→ 교환의 가설을 전제한 후, 모든 것들을 끼워 맞추려 함. 코스모스에 대한 집착.

※ 레비-스트로스 : Claude Levi-Strauss (1908-1991) 프랑스의 인류학자. 영국, 미국의 민족학자의 영향. 프랑스에서는 M. 모스의 업적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문화체계를 이루는 요소들의 구조적 관계라는 관점에서 문화체계를 분석, 구조주의의 선구자가 됨. 주요저서로 『친족의 기본구조』(1946), 『슬픈열대』(1955) 등이 있다.

※ 마르셀 모스 : Mauss, Marcel (1872-1950) 프랑스의 사회학자. 인류학자. 종교 사회학 분야에서 주된 업적을 세움. 뒤르켐 학파 확립에 공헌. 주요저서, 『증여론 Essai sur le don』(1925).

###### - 베에르 클라스트르

: 레비-스트로스에 대한 정면 도전.

: 교환이란, ‘국가장치로 가는 지름길’이다.

: 미개사회의 특징은 교환이 아닌, ‘자급자족’에 있다. 전쟁은 미개사회의 본질.

: 『국가에 맞서는 사회』, 『폭력의 고고학』

→ 미개 사회의 유지원리는 ‘불평등한 관계를 조장하는 국가를 거부하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있다. 들뢰즈, 가타리에 영향.

### (3-4교시)

##### \* 근대 민족국가(국민국가)의 형성

- 국민국가는 국민적, 민족적 시장과 더불어 형성되었다. (마을, 지역, 도시에서 국가로의 이행)

- 유럽 절대왕정은 도시의 신흥 부르주아의 성장을 토대로 발달. (cf, 고려 광종 때)

- 민족주의의 등장 : 19세기 민족주의 음악의 발달(리스트, 차이코프스키, 베르디 등)

##### \* 들뢰즈, 가타리의 도시론

“자본주의는 도시의 성벽이 열리고 새로운 형태의 메타적 흐름기가 이루어졌을 때 형성될 수 있었다.”

- 근대 국민국가와 자본주의의 관계 : 자본주의는 도시를 극복하면서 등장. 근대 국민국가와 자본주의가 동시에 발달했다.

- 도시와 국가의 대립구도. (ex, 베르사유 궁전-도시를 잠식해가는 국가를 상징)

### 사진19 베르사이유 궁전

- 근대 관료제의 탄생. (ex, 막스 베버의 연구, 카프카 소설에서의 배경)
- 근대 정치 철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, 경제 개념을 통해 정치적 사고 모델을 제시한 ‘계약’ 을 말한다.

※ 막스 베버 : Weber, Max (1864-1920) 독일의 사회과학자. 역사학과,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사회과학의 인식론을 주장. 『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』을 통해 역사적 현상을 종교, 정치 행위의 동기와 관련시켜 설명했다.